

‘인구 5만’ 고창, 생활인구는 26만명

이색 관광지 입소문...올 13개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 효과 음식점·주점 등 경제 활력 견인...인구 소멸 위기 극복 우수사례

고창군을 다녀간 생활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관광객을 비롯해 스포츠 활성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이 지역에 활력을 더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창군은 정부가 발표한 최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26만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하며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를 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류인구 증가 추이다. 3월 고창군의 체류인구는 2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에 달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와 비교해 2000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고창군의 체류인구는 3일 이하 단기체류 인원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류인구가 늘어난 배경으로 관광과 스포츠분야 활성화가 꼽힌다.

고창은 지난해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의 대성공으로 재미난 축제와 이색적인 관광지로서 입소문이 나며 주변 광주, 정읍, 전주 등에서 주말 유입인구가 늘고 있다.

군은 상반기 13개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16개 팀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약 40여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기도 했다.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55%로 가장 높은 만큼 대형 숙박시설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숙박형 체류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도 있다.

이와 함께 고창에는 150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넘어섰다. 성송면의 인구가 1677명이란 점에 비추면 1개 면의 인구가 유입된 셈이다.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활력을 잃어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가 붐비고 있다.

여기에 문체부 주관 ‘2024년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과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오피스 거점공간 조성도 생활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군민들의 따뜻한 인심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창만의 매력을 발전시켜서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10개 마을에 오감활용 ‘문화 택배’

10월까지 치유미술·원예 프로그램 등 주민 방문 운영



고창 심원면 성동마을 주민들이 ‘우리동네 문화택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치유미료’를 배우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문화도시센터가 마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해 운영하는 ‘우리동네 문화택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마을은 공음면 상여마을, 아산면 주진마을, 무장면 가라마을, 성송면 남정마을, 대산면 산정마을, 심원면 정동마을, 흥덕면 서삼마을, 성내면 관동마을, 부안면 석암마을, 고수면 평지마을이다.

8월부터 3개월간 매주 각 마을회관에서 치유미술, 치유원예, 치유미료, 향기치유 등 오감활용 치유 프로그램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11월 중에는 마을별로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성과공유회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은 “앞으로도 고창군이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소외이웃 생활불편 해결 ‘복지기동대’가 간다

23개 읍면동 289명 대원 활동 주거환경 개선·생계비 지원 등



남원시 복지기동대 단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운영하는 복지기동대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시는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23개 읍면동 총 289명의 기동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민관 협동의 참여를 촉진해 복지제감도를 높이는 등 현장중심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기동대의 주요 사업은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지원사업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이다.

복지기동대는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1일 1가구 소통행진, 방문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도배장판, LED등 교체, 경사로 및 안전난간대

설치, 방충망 교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립해 지역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올해 7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등 42가구에 4200만원, 의료취약 3가구에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늘봄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교육지원청·경찰 협약

-정읍교육지원청 24. 8. 7 (수) 정읍경찰서 두승산



정읍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읍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읍경찰서에서 최용훈 교육장과 김한곤 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개념이다. 전북교육청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안 늘봄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밖 늘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며 ‘돌봄대기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9월부터 전면시행되는 ‘늘봄학교’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정읍경찰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교육지원청 제공>

정읍에서는 이미 1학기에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집중지원학교가 운영됐다. 9월부터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방침에 따라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읍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른 학교 안 늘봄 강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 밖 늘봄 확대 ▲늘봄학교협의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폭염기간 어르신 건강 집중 관리

방문간호사 등 80명 전문인력 투입

남원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 체조강사 등 총 8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인 심상생생 건

강교실(85개소)을 휴강 없이 연중 운영하며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체조강사 31명을 활용해 참여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법, 응급 상황 대처교육과 함께 흥겨운 건강체조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또 경로당 400개소를 주 1회 이상 방문, 건강측정과 내소자의 안부확인, 폭염기간 만성질환자의 복약관리 지도 등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을 병행 실

시에 어르신의 건강을 총중시 삼피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지난 5월 20일부터 남원의료원 응급실과 연계,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자 발생에 따른 정보와 예방법 등도 경로당 IPTV,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폭염기간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건강수칙을 당부 드리며, 온열질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